

선거제 개편 이견에 얼어붙은 정국

3야 제외 예산안 처리 후폭풍 손학규·이정미 대표 단식 “연동형 비례제 수용해야 복귀” 입시국회 개최 여부 불투명

국회가 우여곡절 끝에 예산안을 처리했지만 연말 정국은 쟁쟁 얼어붙었다. 선거제 개혁 없이 예산안을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 3당과의 갈등의 골이 깊어진 것이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9일 단식농성 4일 차에 접어들었다. 민주당의 ‘우당’이었던 평화당과 정의당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개혁 과제에 앞으로 협조하기 어렵겠다고 싸늘한 분위기를 내었다.

민생법안과 사법개혁, 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정조사 계획서 등을 논의해야 하는 입시국회는 개최 여부도 불투명하다.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정국 경색을 막기 위해 지난 8일 예산안 처리 직전까지 선거제 개혁을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구체적인 합의문 초안까지 마련하기도 했다. 이 합의문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공감하고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조정’



“대화로 품시다” 자유한국당 김병준(왼쪽) 비상대책위원장이 9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결단 촉구 야 3당 단식농성이 계속중인 국회 로텐더룸을 방문해 정의당 이정미(가운데) 대표, 민주평화당 박주현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 의지 표명이 먼저 필요하다는 것이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확실히 이뤄질 수 있다고 하는 정부 여당과 야당의 합의가 있을 때까지 단식을 이어갈 것”이라고 못 박았고, 정의당 이정미 대표 역시 “12월 선거제도 개혁이 완수될 때까지 단식농성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처리가 합의돼야 농성을 그만둘 것”이라며 “두 대표의 단식이 계속 돼 국민 관심이 커지면 특히 여당에 정치적인 타격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동형을 포함한 폭넓게 논의하자”는 민주당의 설득에 야 3당은 ‘선거제 개혁을

피하려는 꼼수’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동안의 의구심이 예산안 처리 강행 후 불신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선거제 개혁 시 의석수에서 손해를 볼 가능성이 큰 제1당 민주당과 제2당 한국당이 야 3당의 요구대로 ‘결단’을 내리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연동형 배분 방식을 원칙으로 한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주장하는 민주당은 여야 원내대표가 지난 8일 마련했던 초안 수준 이상의 합의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야 3당이 요구하는 ‘완전한 연동형’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은 “(야 3당과 민주당은) ‘연동형’에 대한 해석이 다른 것

같다”며 “완전 연동은 초과의석이 발생하기 때문에 국민을 설득하기 어려우니 다른 방식을 찾아보자는 것이다”고 말했다.

한국당과 야 3당과의 간극도 만만찮다. 원내대표 선거와 전당대회라는 빅이벤트를 앞둔 선거제 개혁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한국당은 당내에 아직 뚜렷하게 통일된 의견이 없다. 그러나 야 3당의 요구에는 부정적이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아들이기에는 중압감이 너무 컸다”며 “민주당도 그렇고 우리도 그럴 수용하는 순간 당내 큰 반발에 부딪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한국당 원내대표 김학용 vs 나경원

후보 등록...러닝메이트 김종석·정용기 각각 지명

자유한국당 새 원내대표 경선이 김학용, 나경원 의원(기호순)의 양자 대결로 치러지게 됐다.

두 의원은 9일 원내대표 경선 후보로 정식 등록을 마쳤으며, 기호 추첨 결과 김 의원이 1번, 나 의원이 2번으로 각각 결정됐다.

앞서 경선 출마를 선언했던 유기준·김영우 의원은 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러닝메이트로 선출하는 정책위의장 후보로 초선 비례대표인 김종석 의원을, 나 의원은 재선의 정용기 의원을 각각 지명했다.

한국당은 오는 11일 국회에서 이들의 정견 발표를 듣고, 소속 의원들의 투표로 차기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을 선출한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국

방위원회 출신이자 30년 정치 내공을 가진 제1 안보를 책임지고, 최고의 경제전문가인 김종석 의원이 경제를 책임지며 멋진 협업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회견에서 “최장수 당 대변인을 시작으로 치열하게 싸워온 4선 원내대표와 재선 구청장·재선 의원의 경험을 가진 정책위의장이 만나 경륜과 실력으로 품격있는 투쟁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탈당했던 복당파를 중심으로 한 비박(비박근혜)계로 분류되는 반면, 나 의원은 상대적으로 친박·전류파의 지지세가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계파 구도가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 지도부 연말 ‘민심청책투어’

(聽策)

내년 당정협의 반영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올해 연말 전국 민생 현장을 돌며 민생청책투어에 나선다. ‘청책’은 청정과 정책에서 한 글자씩 따서 만든 말로, 국민에게 들은 바를 정책과 통일된 의견이 없다. 그러나 야 3당의 요구에는 부정적이다.

9일 민주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홍영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 8명과 윤호중 사무총장, 김태연 정책위의장 등 10명이 각각 10여명의 의원과 함께 팀을 짜 민생청책투어에 나선다. 민생청책투어는 민심을 내년 당정 협의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현재 10개 팀을 지역이나 이슈별로 나눠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신청자를 받고 있다. 전북 군산이나 경남 창원 등 고령위기 지역, 저출산·고령화

문제나 재난 안전 문제 등 저마다 관심 있는 분야를 신청하도록 공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 지도부는 의원마다 개인적인 일정이 많지만, 민생청책투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할 방침이며 신청을 하지 않으면 민생청책투어에 포함되지 않을 예정이다.

민주당이 이처럼 12월에 이 같은 일정을 잡은 것은 당 지지율이 하락곡선을 그리는 가운데 문제안정부 3년 차 국정운영을 제대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심기일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민생청책투어 워크숍 날짜는 유동적인 연말 일정을 고려, 조만간 최고위원회의에서 확정한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유치원 3법’ 연내 처리 무산되나

민주-한국당 회계 처리 방식 이견 못 좁혀 불발

여야 간 이견으로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의 정기 국회 내 처리가 불발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여야 의원들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지난 7일 릴레이 협의를 이어갔지만, 주요 쟁점인 교육비의 국가회계 관리 일원화, 교비 유용에 대한 처벌조항 마련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3당 원내대표와 교육위 간사들은 조을 통해 한때 ‘회계 일원화, 누리과정 지원

금 체계의 현행 유지, 벌칙조항 마련(유예기간 설정)까지 의견 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교육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정부 지원금과 학부모 부담금(원비)에 대한 처벌규정 차등화 등을 요구하며 이날 오후 6시40분 예정된 법안심사소위에 참석하지 않았고, 이후 교육위는 표류했다.

결국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이날까지 여야가 합의에 실패한 것으로, 유치원 3법 연내 통과는 사실상 물 건너 갔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 원포인트 본회의 검토

김상환 임명동의안 등 시급...野 비협조 걸림돌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민생·개혁 입법 등을 위해 이번 달에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를 검토하고 나섰다.

지난 7일 새벽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했으나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포함한 계류 법안과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등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9일 “오는 20일께 원포인트 본회의를 소집하자는 논의가 있지만 야당과 협의해야 하는 문제여서 불확실하

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자유한국당과 유치원 3법에 대한 시각차가 심한 데다 한국당 새 원내지도부가 12월 출범하는 만큼 협상을 새로 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다. 더욱이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 3당의 태도도 걸림돌이다.

특히 바른미래당 손학규,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며 단식농성 중이어서 이에 대한 해법 없이 협상장으로 유인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13일 ‘안전관리’ 범정부 대책 회의

최근 생활과 밀접한 기반시설 안전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13일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3일 김부겸 장관 주재로 15개 중앙부처와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여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국민생활과 밀접한 시설의 안전관리 대책을 논의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최근 KTX 오송역 정전과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 고양 백석동 온

수관 파열에 이어 이날 KTX 강릉선 서울행 열차 탈선 사고까지 기반시설 안전사고가 연이어 발생해 데 따른 것이다.

한편 행안부는 KTX 탈선 사고와 관련해 현장에 상황 관리관을 파견하고 한국철도공사·강릉시와 협조해 사고 수습을 지원하고 있다. 김부겸 장관은 사고 상황을 보고 받고 신속한 구조와 복구에 최선을 다해 피해자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을 지시했다고 행안부는 전했다. /연합뉴스

착한보청기협동조합

보청기

70~50% 할인 이벤트

“불만족시 1달 안에 100% 환불”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655-6544 산수오거리지점

062) 362-3336 돌고개지점

태양발전소 분양

동·식물 재배사(건물 위)가중치 1.5배

100KW 월 **270만원** 예상(+1층 농장 임대비) · 50KW 월 **135만원** 예상

땅+건물+태양광 년12% 수익

자금대출가능

연금 발전소 태양광이 효자!!

분양지역: 영광,영암,완도,진도

▶ 한전과 20년 장기계약 안정적 투자

- 모듈: LG화학큐셀 고효율 단결정
- 인버터: 이태리ABB, 독일카고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100년 기업 **정직 · 신뢰**

(주)해가온 개발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이길영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층